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360호 【루계 제25138호】 주체104(2015)년 12월 26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해주시에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친 황해남도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선군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황남땅에 높이 모시게 된 크나큰 영광을 안고 도무역관리국 수경합영회사, 해주항, 재령광산, 연하룡성수산사업소, 해주편질농기계공장, 해주직물공장, 도농기계부속품상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자재들과 지성이 어린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며 황남땅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뵙고싶어 우러르며 살고싶은 충정의 마음을 안고 해주건설사업소 지배인 최만수, 설류봉무역회사 로동자 방순애, 황남임보사 로동자 허명숙, 연하룡성수산사업소 로동자 김금철, 해주시상하수도단방사업소 로동자 박경순은 성의껏 마련한 많은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해주시제2인민병원 의사 원용일, 도인민병원 의사 박창호, 도도로건설려단지료소 의사 안혜련, 도무역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리수향은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해주시에 모신다는 소식을 크나큰 격정속에 접한 도도시건설려단 대대장 민봉혁, 도무역관리국 과장들인 리혜옥, 최창숙, 로동자 최철명, 도소아병원 의사 리철우는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념원을 꽃피워갈 불타는 마음 안고 은률군검찰소 문서원 김민회, 옥계무역회사 로동자 현은석, 해주시 옥계동 48인민반 박영애, 석미동 101인민반 리추란, 남산동 35인민반 전화의 등 많은 근로자들도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황해남도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년 높이 우러러모시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7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놓은것은 물론 유연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장을 21세기 산업발전의 추세에 맞게 전변시켰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할데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현대적인 기계생산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일본의 교도통신,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란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5월9일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과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세계적수준의 메기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소식을, 민주꽁고의 인터네트홈페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태양

외국인들이 터치는 다함없는 경모의 목소리

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방글라데슈자력갱생연구소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할 때마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 되새겨지게 된다.

절세위인들께서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로 조선을 자주의 한길로 이끄시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여 인류자주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조선이 오늘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우뚝 솟아 빛나고 조선인민이 자주성이 제일 강한 인민으로 될수 있은것은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조선의 수령들과 같이 장구한 기간 혁명을 령도하시는 나날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언제나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인들은 없다.

정녕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는 인류력사의 어제와 오늘, 래일까지도 대표할수 있는 가장 걸출한 위인들이시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앙드레 로헤젤레 깔론다는 위대한 수령들께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흠모의 마음이 합쳐지는 곳이다, 나라와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는 인류의 심장속에 위대한 태양으로 영생하신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 단장 와집 꾸지민은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의 수령들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태양의 성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세상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처럼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려진 성지는 없다.

이곳에 오면 절세위인들께서 우리를 반겨맞아주시며 격려해주시는것만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다.

우리들은 언제나 태양의 성지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있으며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군 한다.

천출위인들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도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주신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 쏭코리 바로떠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지지도회수와 로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위인들의 혁명활동력사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인민의 행복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로고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그분들의 고귀한 생애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을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고 피력하였다.

오스트리아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대표단 단장 토마스 뢰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드린 수많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을 보면서 그분들께서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더 잘 알게 되였다.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세계정치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신 조선의 수령들은 만민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만세!

본사기자

주체104(2015)년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선군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치는데 크게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일군들에 대한 국가표창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며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시고 천만군민을 새로운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과감히 벌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과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단숨에 일떠세웠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주체104(2015)년 국가표창수여식이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김평해동지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와 지방의 당, 행정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교원, 로력혁신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전달하였다.

김일성훈장이 차종범, 김복남에게, 김정일훈장이 최용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이 리천수, 양문상, 황장춘, 문룡식, 포희성, 윤정수, 김명철, 박정철, 김경수, 전홍철에게, 김일성상이 김영희에게, 김정일상이 최성천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조석철, 오철시, 김영조, 조정철, 박선희, 김광현, 림창욱, 리철, 조운봉, 정경철, 김덕형, 리주택, 차명수, 최은실에게,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이 김문철, 김천웅, 김국철, 박정훈, 임중빈, 김철호, 유희찬, 임윤혁, 김승호, 송창수, 김옥남, 임능일, 김동렬, 서철, 한금철, 정성철, 김영희, 신상섭, 송용택, 최만춘, 김남수, 리상철, 정광택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이 김광혁, 신정남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서동일, 김경애, 김경석, 장충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이 주성군, 리철진, 한현옥, 김광일, 방향순, 원은경에게 수여되였다.

이어 인민과학자칭호가 손홍령, 박민열에게, 인민교원칭호가 리영철, 손경애에게, 인민예술가칭호가 김훈에게, 공훈과학자칭호가 류기송, 유봉숙, 최성, 최용호, 최승경, 오광석, 홍순옥, 오만건, 김주영, 정청송, 김종길, 권정림, 윤은희, 천은주, 김덕수, 김룡수, 손룡철, 민철우, 천선옥, 한원옥, 심광철, 정근에게, 공훈기술자칭호가 림명성, 차성철에게, 공훈건설자칭호가 리정남, 김봉욱, 리정이에게, 공훈탄부칭호가 김철수, 계영호, 김정식에게,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가 김용철, 최성국에게, 공훈운재공칭호가 김룡해, 로창선에게, 공훈산림공칭호가 강영수, 박경남에게, 공훈소성공칭호가 채종오에게, 공훈열관리공칭호가 한선철에게, 공훈어부칭호가 김광현, 최창길, 김용남에게, 공훈교원칭호가 최송란, 허영희에게, 공훈기자칭호가 김원석, 태명호, 한철, 정성철에게, 공훈방송원칭호가 박옥희에게, 공훈인쇄공칭호가 강창선에게, 공훈의사칭호가 정석범, 현홍식, 장학성, 최순옥, 리영수, 리복남에게, 공훈사적강사칭호가 리영옥에게, 공훈민족유산강사칭호가 김인국에게, 공훈출판물보급원칭호가 장혜순에게, 공훈사양공칭호가 하원일에게, 공훈리발사칭호가 박선옥, 림선옥, 강정희에게, 공훈보육원칭호가 최인숙에게, 공훈재봉공칭호가 김춘택에게, 공훈료리사칭호가 김영학, 김혜란, 리수은, 함영란에게, 공훈접대원칭호가 박승철에게 수여되였다.

또한 오수남, 리상섭, 리인철, 안영일, 김세훈, 박봉화, 강일, 윤철훈, 차정태, 김광욱, 로광철, 장철진, 리희숙, 량성군, 채만복, 윤근수, 리성욱, 림영철, 김용식, 김경무, 김대화, 조성호, 주영호, 최대성, 김철신, 한운삼, 박철호, 김영식, 안성일, 리상환, 리호남, 오세철, 리봉수, 봉춘일, 서상원, 리명철, 라원일, 최승빈, 김광선, 김광남, 리택화, 윤영춘, 박영철, 리태환, 박동길, 황보철, 김명화, 박철호, 리근주, 박정섭, 김창머, 강송란, 독고창국, 최영보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다.

로력훈장이 4명에게, 국기훈장 제2급이 25명에게 수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가 올해 국가표창을 수여받은 대상들의 투쟁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값높이 평가하시고 최상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올해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고 당의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성과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에서 우리 식의 수자지질도열람체계 새로 개발, 물절약형농법실현에 적극 기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주체적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뭉개버리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과학기술성과로 옹호하고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물문제해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이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식의 수자지질도열람체계를 새로 개발하고 지하수탐사설비의 성능을 훨씬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킬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를 비롯한 5개 도의 60여개 농장들에 나가 물절약형농법실현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물확보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이들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는 과학적담보로 된다.

지하수원천을 적극 찾아 종합적으로 리용하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이며 당정책적요구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이것을 연구종자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온넋과 열정을 바쳐나갔다. 학부책임일군들이 늘 그들속에 들어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즉시적인 대책들도 세워주면서 기적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또 다르게 놀라운 속도로 비약하는 조국의 숨결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온 학부가 부글부글 끓었다. 특히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갈 불같은 일념을 안고 불꽃튀는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온 수문지질학강좌의 교원, 연구사들은 올해 정초까지 수자지질도열람체계를 우리 식으로 새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지하수분포상태를 보다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최대의 자료해석정확성을 보장할수 있게 지하수탐사설비의 성능도 종전보다 훨씬 높이였다. 그리하여 수자지질도의 리용지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과학적인 분석과 측정에 기초한 지하수 및 지질탐사결과를 얻을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시추회수를 종전보다 80%정도 줄이면서도 물확보시설들의 건설위치와 규모, 지하수리용방식을 정확히 확정할수 있는 또 하나의 전망이 열리였다.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를 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즉시 전개되였다.

이에 따라 리길상, 리근향동무들을 비롯한 수문지질학강좌의 교원, 연구사들이 해당 도들을 담당하고 나갔다.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이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함께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해당 지역 농업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물확보시설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되도록 아낌없는 과학기술적방조를 주었다. 결과 황해북도를 비롯한 5개 도들에서의 물확보시설공사가 여러가지 형태로 추진되여 수백정보의 관개면적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되였다.

은률군에서의 농촌지원전투기간에도 학부에서는 군안의 10여개 농촌지역들에 대한 지하수탐사를 주동적으로 진행하고 자료들을 종합하여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10여개의 지하저수지와 굴포들은 본보기가 될만 하게 직접 맡아 건설하여 뜻깊은 올해의 농업생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지금 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룡남산의 아들딸들답게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일

우리 시대 청춘들의 애국정신의 발현

각지 청년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진출하여 위훈 창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에 한몸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치고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현재까지 830여명의 청년들이 탄광, 광산, 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자원진출하여 청춘시절을 빛내이고있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끓는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긴 중구역인민위원회 로철호, 룡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부원 박명임을 비롯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달려나가 삶의 뿌리를 내리였다.

지난날 잘못 살아온 자기들의 생활과 결별하고 늦게나마 대고조전역들에서 청춘시절을 빛내일 결의를 안고 안주시의 30여명 청년들과 북창군의 60여명의 청년들이 청천강화력발전소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들에 달려나가 헌신하고있다.

자강도의 80여명 청년들과 순천시의 30명 청년들, 평안북도의 20여명 청년들이 청년돌격대를 뭇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진출하였으며 함경북도의 30명 청년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청진수산사업소와 김책수산사업소에 진출하여 성실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구성시의 10여명 청년들과 재령군의 4명의 청년들, 문덕군의 30여명 청년들을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청년들도 탄광, 광산, 협동농장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 등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진출하여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최근 몇달사이에만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달려나간 청년들속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이 창조되였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송남청년탄광에 진출한 수십명의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을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불타는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그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두가 청년강국의 주인, 탄전의 보배로 영예떨칠 일념안고 석탄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12월 21일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136%로 초과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회안탄광에 진출한 60여명의 청년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일념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창건 70돐전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탄광 리수복청년돌격대의 40여명 청년들과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리수복청년돌격대원들, 령대탄광에 진출한 40여명의 김진청년돌격대원들도 당창건 70돐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130%, 110%, 135%로 넘쳐 수행하였다.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장에 진출한 길영조청년돌격대원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드높은 성과로 보답할 일념안고 배수갱공사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공사과제를 맡아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언제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일에 스스로 앞장서 뛰여들고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해,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해 헌신분투하는것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굿굿이 이어지고있는 조선청년들의 투쟁전통이며 세상에서 오직 우리 청년들만이 지닐수 있는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달려나가 청년강국의 주인공의 위용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는 각지 청년들의 힘찬 로력투쟁은 지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나아가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승리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자

위대한 당을 따라 폭풍쳐달려온 격동의 해를 더듬어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격동적인 날과 달이 이 땅에 흘렀다.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위대한 정치경륜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경축하였으며 과학중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속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최첨단을 돌파한 자랑찬 결실들을 이루고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으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운 주체104(2015)년.

당의 두리에 산악같이 뭉친 철의 대오가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성스러운 년대기우에 미증유의 흔적을 남긴 뜻깊은 해가 저물어간다. 천만의 가슴에 강렬한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참으로 잊을수 없는 해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가는 강대한 조선은 어떤 추진력으로 하여 이처럼 노도처 전진하는것인가.

위대한 승리자들에게는 웅심깊은 심장의 언어가 있다.

우리 천만군민의 운명이시고 영광이시며 행복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인민과의 혼연일체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시며 인민사랑의 정치를 광휘롭게 펼쳐가시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인민의 령도자를 높이 모신 혁명은 영원히 백전백승한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고 2015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인 천만군민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이다.

＊　　＊

과연 무엇인가. 길을 걸어도, 일을 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뇌리에서 떠날줄 모르고 생동한 화폭으로 밟혀오는것은.

머나먼 하늘길, 뱃길, 배길을 달려 찾아가신 기적의 격전장, 라선전선에서 발휘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더워진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수많은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천금같이 귀중한 혁명시간을 바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물목이 터진듯 달려와 폭풍같은 환호를 올리면서 그이께서 타신 뻐스를 끝없이 따라서며 기쁨에 울고 행복에 웃는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뜨거운정을 머금으시던 아, 우리 원수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온 한해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일편단심으로 그이만을 따르며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달려왔고 뜻깊은 이해를 장식하였다.

온 한해 우리 천만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새겨져있지 않았던가.

새해 첫날 아침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한다고 하신,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며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열과 정이.

이 땅에 사는 누구나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축복을 받으며 한껏 부푼 희망과 솟는 열정에 넘쳐 최후승리의 리정표를 향하여 출발한 해였다.

뜻깊은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 현지지도소식에 접하여 천만군민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때를 잊을수 없다.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할 뜻깊은 해였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년초부터 할 일이 참으로 많으시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요람속에 자는 아이들, 아직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다.

세상에 없던 일이였다. 세계의 정치가들이 저저마다 민족부흥, 경제주로를 말하며 요란한 공약을 하던 순간이였다.

소문없이 조용히 옮기신 걸음이였지만 세계를 뒤흔든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유산인 우리의 일심단결,

일심단결로 전진하는 혁명은 백전백승한다는 진리를 세계에 선언한 우리 조국의 2015년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거세차게 폭발한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은 참으로 크나큰 보폭을 내짚었다.

그 용용한 진군대하에 활력을 부어주며 비약에로 힘차게 떠민 거대한 힘이 있었다.

몇백만t의 강재였던가, 몇천만t의 세멘트였던가. 아니다.

그리움이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이 발전소건설장으로 오느라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다고, 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불편하신 몸이셨지만 이런 산세험한 곳까지 찾아오시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려온다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걸어보니 정말로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갈마든다고,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여서 조국의 만년재부인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자는것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렬차는 집무실이였고 집이였다고, 장군님을 철도에 편히 모시였더라면 이다지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희한한 멋쟁이공장으로 전변된 평양메기공장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던 공장중의 하나라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생활을 위해 마음쓰시고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난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평양화장품공장, 종합봉사선《무지개》호, 창광상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온 한해 조국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걸으시며 품결에도 어버이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인민의 가슴에 장군님과의 혈연의 뉴대를 더 뜨겁게 이어주시였다.

뜻깊은 올해는 어버이장군님만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가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천만의 가슴에 더욱 속속들이 스며든 해이다.

천만군민이 우리 원수님의 정과 열의 품에 일편단심으로 고동치는 심장을 통채로 맡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가 천만의 가슴을 치며 심장의 박동소리를 높여주고 시대의 거세찬 숨결로 높뛴 격동의 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일편단심 꽃피울 한마음안고 장엄한 철의 대오가 유훈관철전의 기상으로 몰아번졌으며 그 거세찬 불길속에 자본주의가 천만금의 재부로도 살수 없는 경이적인 결실을 맺었다.

성스러운 그 길에서 희한한 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진 승리의 해였다.

력사의 그 길에서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유산인 일심단결을 더 억척같이 다지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12월의 언덕에서 폭풍처럼 달려온 길을 더듬어보는 천만의 가슴에 어버이장군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민을 위한 강행군길을 수놓아오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모습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우리가 보았고 세계도 다 보지 않았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매일, 매시각 어버이장군님과 마음속대화를 나누시며 인민을 위한 일감도 토의하시고 장군님의 고무를 받으시며 장군님을 모시던 그 열화의 자세로 가신 단위는 그 얼마나 많은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원산구두공장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꾸려놓으니 장군님께 이렇게 희한하게 개건된 공장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더 허빈다고,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뜨겁게 뇌이신 원산구두공장.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아들이 살게 될 궁궐같은 새 집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장군님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수 있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여러차례나 평양국제비행장을 잘 꾸릴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드디여 관철하였다고, 이처럼 훌륭히 건설된 항공역사에 장군님을 한번도 모시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가슴속에 갈마드는 가책을 금할수 없다고, 장군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번듯하게 일떠세운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장군님께서 웃으시는 영상이 눈앞에 선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항공역사.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어제가 없었다면 오늘의 전변이 있을수 없다고,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찾아뵈옵고 장천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를 보고드리겠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너무 기뻐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고 갈리신 어조로 말씀하신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속에 일떠선 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고보니 수령님과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설맞이공연을 진행하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이 열화의 일편단심속에 어버이장군님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구내길도 걸으시고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도 함께 돌아보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총진군의 진두에 원수님과 함께 계시였다.

만민을 울리는 류례없는 충정의 길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기치는 세차게 나붓기였고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은 자력자강으로 기적을 창조하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천하를 얻고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백승을 떨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뜻깊은 올해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많이 꽃펴난 격동의 해였다.

백두산대국의 제일국력이 무엇인가를 페부로 절감하게 하는 조국의 최북단 라선시, 여기에서 일어난 기적의 밑뿌리를 뇌리에 새겨야 한다.

무섭게 터진 대홍수, 삽시에 휩쓸어간 거리, 보금자리…

사품치는 물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가면서도 물 한방울 스며들지 않게 정히 보존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만은 가슴에서 놓지 않은 사람들, 졸지에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

방금까지 함께 웃던 사랑하는 혈육들을 잃고 어제까지 오가던 이웃들을 이제 다시 볼수 없는 가슴터지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였다.

하지만 그들모두의 가슴을 더 미여지게 한것은 무엇이였던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정과 열을 아낌없이 쏟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천만의 자식중 어느 누가 가슴앓이라도 할세라 그리도 마음쓰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가.

바로 그때, 원쑤들의 광증으로 하여 정세는 말그대로 분분초초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었다.

나라의 최고중대사를 토의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하달,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 조직…

멀리 세간낸 자식이 당한 불행을 두고 잠 못 이루는 친어버이의 정과 열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 군인들이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거창한 전선을 형성한 피해복구전투장을 찾으시고 현지에서 전투지휘를 하시였다.

큰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

천만의 가슴가슴에 우리 원수님 만세의 환호가 더욱 뜨겁게 격랑치게 하고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더욱 소중히 간직되게 한 위대한 일심단결의 그 나날들을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엔 자나깨나 인민생각, 멸사복무의 일념이 꽉 차있고 인민의 가슴속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 우리 원수님을 충정으로 모시고 받들려는 불타는 마음뿐인 우리의 일심단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밑뿌리였다.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이 위력한 무기로 우리는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 8월의 승리를 안아왔으며 10월의 대경사도 마련할수 있었다.

승리의 올해를 감회깊이 추억하는 천만의 가슴에 10월의 열파는 아직도 뜨겁게 격랑친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을 높이 모신 인민의 환희, 우리 원수님 만세의 환호로 세계를 들었다놓은 조선의 10월이였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력사의 험한 풍파속을 헤쳐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체 인민에게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그 열화의 진정에서,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로 세계의 하늘가를 진감하신 우리 원수님의 정치철학에서 천만의 철의 대오는 다 절감하지 않았던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더 높이 추켜드신 일심단결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명줄이고 후손만대의 재보임을,

원쑤들이 백번천번 악랄한짓을 일삼는다고 하여도 오직 우리 조국에만 있고 그것으로 하여 인민의 긍지 부풀게 하는 일심단결, 이 위력한 무기가 있는 한 우리는 천번만번 승리의 장훈을 부를것이라는것을…

우리의 일심단결은 조국수호, 혁명보위의 최강의 무기이다!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필승의 무기이며 무적의 성새이다. 우리가 이룩한 력사적인 승리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전쟁이라는 재난의 파도앞에서도 변함없이 당만을 믿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여준 우리 인민은 나의 영원한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이다. 앞으로도 나의 영원한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일심단결의 힘, 군민대단결의 힘이 있었기에 자연의 혹독한 전횡도 맥을 추지 못했고 전대미문의 피해도 단숨에 가실수 있었다!

일군들은 우리 혁명이 당을 받들고 옹위하는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20세기를 빛내여온 우리 당의 단결의 력사가 21세기에 더 장엄히 흐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자신을 위한 삶은 1초도 허용치 않으시고 자신에 대한 평가는 인민의 진심으로 만족해하시며 오직 한길,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만 끗끗이 걸으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그래서 잊을수 없는 해를 보내며 우리 원수님과 함께 걸은 극적인 나날들을 더듬는 인민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것 아니던가.

우리의 최후승리가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다 말해주는 백두산대국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

이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과 그이께서 열렬히 사랑하시며 하늘높이 떠올리시는 우리 인민사이에 흐르는 심장의 혈맥이다.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충만된 올해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폭발적으로 과시한 참으로 희한한 해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성대히 경축할 새해가 다가오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힘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례없는 승리를 이룩하고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려는것이 천만의 대오에 굽이치는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무진막강한 국력인 일심단결을 더없이 중시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 때 빛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 일심의 성새를 쌓고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영원히 찬란한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새겨안는다.
–류경원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표식비 여러 단위에 건립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전하는 현지지도표식비가 사리원돼지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인민야외빙상장, 릉라인민체육공원관리소에 건립되였다.

주체96(2007)년 12월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현대적인 축산기지로 건설된 사리원돼지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도에서 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돼지공장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명시해주시였다.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좋은 영양식료품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5년 1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여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을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몸소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인민야외빙상장의 터전을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한해에만도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시며 공사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으며 빙상장관리운영과 봉사활동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2013년 6월 릉라인민체육공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봉사기재들을 갖추어주는것과 함께 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공원을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을 안고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지지도표식비를 건립하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여러 단위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를 건립한것은 인민생활향상에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갈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표시로 된다.

현지지도표식비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에서 위대한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맥박치는 연설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고 기적과 위훈창조의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것은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였으며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습니다.》

대지에 억세게 뿌리내린 거목이 폭풍에도 끄떡없는것처럼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력사의 모진 시련과 광풍속에서도 백전백승을 떨치는 강위력한 당으로 되자면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다.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한시도 인민과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왔다.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년대들마다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강인한 의지로 력사의 험한 풍파속을 뚫고오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여온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당의 위업을 절대적으로 찬동하고 진심으로 받들어온 지지자이다.

인민은 혁명하는 당의 생명의 뿌리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지 못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다. 지난날 세계혁명운동사의 교훈은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온 우리 당의 령도는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의 근본담보이다. 우리 인민은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추호의 동요없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 있으니 너무 근심하지 마시라고 말씀올린 신포항영웅을 비롯한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전후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을 놓고 어쩌고저쩌고 떠들 때에도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는가고,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한다고 말씀올린 태성할머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기대옆에서 쓰러지면서도 변함없이 당만을 지지하고 받들어온 자강도로동계급, 이들모두는 평범한 인민이였다.

오늘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가는 당의 위업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는 더욱 순결하고 공고해지고있다. 엄혹한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앞에서도 순간의 동요나 주저가 없이 당만을 지지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절대불변이다.

우리 인민은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과 방도를 제기하는 훌륭한 조언자이다.

인민은 모든것의 선생이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마를줄 모르는 지혜의 샘이며 인민들속에 혁명투쟁의 진리가 있고 기적과 혁신의 묘술이 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가사보다도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왔다. 인민대중만큼 현실을 잘 알고 실정에 밝은 사람들은 없다.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는 사회주의 대건설장들과 심심산골에 가도 어디서나 볼수 있는것이 앉으나서나 당정책관철을 위해 머리를 쓰고 사색하는 슬기롭고 성실한 우리 인민들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요구와 의사는 곧 로선과 정책작성의 출발점이고 절대적기준이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은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현명한 스승은 인민대중이라는것을 절대불변의 신조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 가나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묘술을 찾아내신 절세의 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예술의 귀감이 새겨져있다. 공장에 가시면 기름묻은 로동자들의 손도 다정히 잡아주시며 생산정상화의 방도도 토의하시고 드넓은 농장벌을 찾으시면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도 의논하신분이 우리 수령님들이시였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목적의식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도 모색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막힐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 인민은 자신들을 스승으로,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준 당의 령도를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가는 충실한 방조자이다.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각성되고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해나갈 때 극복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패하고만다는것이 혁명투쟁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이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고 벽을 울리면 강산을 들었다놓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이고 기상이다. 전후 그처럼 어렵고 간고한 시련의 시기에 강선의 로동계급은 강재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호소를 받들고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여 당정책관철을 음으로양으로 반대하는 종파분자들과 인민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대주의자, 기술신비주의자, 보수주의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기였다. 이런 영웅적인민,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에 우리 당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성새를 일떠세우고 제국주의의 악랄한 봉쇄속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일터와 마을을 당중앙위원회뜨락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 바치고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서고있는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 표준공장들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선군시대의 대기념비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건설된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인공지구위성과 지하전동차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에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력사를 수놓아가는 위대한 당과 어머니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는 참된 인민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있는것이다.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돛으로 삼아 보다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갈것이다.

조 학 철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으로

개성시 림한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독보와 해설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도서들과 당보에 실리는 기사들에 담겨진 내용을 누구보다 깊이 학습하고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의 한 일군은 작업의 휴식참을 리용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모습이 나날이 변모되고 인민군대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실감있게 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갈 결의에 넘쳐 당면한 영농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류승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영예로운 선구자가 될 드높은 열의

평양시안의 당조직들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작전, 혁신적인 일본새

평양시당위원회 사업에서

평양시당위원회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조직들을 믿고 직접 맡겨주신 전투과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의 구절구절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떨쳐나선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벌써부터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위원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현시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접한 시당일군들의 흥분은 컸다.

평양시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도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자!

이런 불같은 열의밑에 시당위원회에서는 목표부터 구체적으로 세웠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시한것이 있다. 과연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 불씨를 심어주어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번질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이를 두고 모색하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 조건이 어렵고 힘든 부문부터!

여기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으로 걸린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며 어려운 부문의 단위들에서 본보기를 창조함으로써 많은 단위들이 스스로 분발하여 떨쳐나서게 하자는 의도가 있었다.

시당위원회의 작전도의 첫 화살표는 수도려객운수부문, 상하수도부문, 도시경영부문, 승강기운영부문에 그어졌다.

목표선정에서 시당위원회가 또한 초점을 돌린 곳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생산부문의 현지지도단위들이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최고의 중대사로 내세우는 당의 의도에 맞게 이 부문을 활성화하는데서 령도업적단위들이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던것이다. 하여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에서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 문제, 평양326전선공장과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하여 이미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에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이 운동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문제 등이 목표에 반영되게 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높이 세운 목표에 맞게 빈틈없는 작전도 따라세웠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의 기본정신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맹렬히 벌리였다. 서한에 대한 학습제강을 만들어 아래단위들에 내려보내주는 한편 각급 당조직들에서 문답식학습경연, 학습담화, 해설사업, 직관물게시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서한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의 작전가운데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부문별회의들이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수도의 도로관리사업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도로관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회의 및 축하모임을 조직하였다. 이어 수도의 려객운수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승강기운영부문 회의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이 회의들에는 특징적인것이 있다. 지난 시기에는 주로 일군들이나 열성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면 이번에 진행된 회의들에는 평범한 로동자들까지 다 참가시킨것이다. 한것은 몇몇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없기때문이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회의들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준비에 힘을 넣었다.

먼저 아래단위 당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통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나타나고있는 긍정과 편향들을 장악한데 기초하여 시당위원회의 해당 일군들이 모여앉아 구체적인 토의를 하였다. 자료통보와 록화편집물보여주기 등으로 좋은 경험들을 교환하고 축하모임, 축하공연도 진행하며 평가사업도 의의있게 하기 위한 빈틈없는 작전이 세워졌다.

회의규모와 형식, 그에 따르는 대책에 이르기까지 시당책임일군들이 직접 사색을 기울이며 품들여 준비한 부문별회의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도로관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회의를 놓고보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청취하면서 회의참가자들은 이 운동의 현 실태와 자기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회의에 이어 진행된 축하모임에서 일군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혁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새로운 자각과 분발심을 가지게 되였다.

시당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시당일군들은 아래단위들에 목표를 제시해주는데만 그치지 않고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려객운수부문을 추켜세울데 대한 과업을 받은 부서에서는 과별로 담당한 사업소들에 자주 내려가 정치사업과 후방사업도 하고 필요한 자재도 보장해주고있다. 운전사들이 차관리를 잘하도록 하는데서 긴장한 려객수송문제의 해결방도를 찾은 시당일군들은 그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총화를 매달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평가사업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시당일군들의 사업기풍에서 찾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완강한 일본새이다. 수도시민들의 먹는물문제해결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시당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평양시상하수도관리국아래 사업소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먹는물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일군들이 어떤 각오를 안고 작전에 어느만큼 뼈심을 들이며 그 실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따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성과여부가 결정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순영

주관부서의 역할과 대중운동속도

평천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전선동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직접 맡아 지도하는 당위원회의 주관부서입니다.》

평천구역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자자구구 심장에 쪼아박으며 그에 비추어 구역의 대중운동실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지금껏 그만하면 성과가 있다고 자부해왔지만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니 할 일이 참으로 많았다.

비서 김효남동무를 비롯한 부서의 일군들은 비상한 각오밑에 새 출발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대책들을 세웠는가.

우선 이 운동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세워주고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이전보다 더 심화시켰다.

당, 행정일군들이 모이는 계기를 리용하여 분기 1차씩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나타난 우결함을 통보해주고 앞선 단위의 예술공연을 보여주는것을 제도화한것이 대표적실례이다. 얼마전 3대혁명붉은기단위 판정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 구역종합식당 종업원들의 예술공연을 일군들에게 보여주고 이 단위의 대중운동성과자료와 경험도 통보해주었다. 반영이 좋았다. 일군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였던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단계별결의목표 직관물전시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은것도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이런 실례가 있다. 대회이후 걸기단위들의 실태를 료해하던 부서의 한 일군은 어느 한 단위의 대중운동결의목표직관물에 집행기간과 집행자가 밝혀져있지 않은것을 보게 되였다.

이것은 사수가 없는 총과 같은것이였다.

이 사실을 놓고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대중운동과 관련한 직관선전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 대중발동의 사회적분위기가 고조되게 되였다.

부서에서는 본보기창조와 일반화도 혁신적으로 해나갔다. 주목되는것은 이 사업에 이전처럼 몇몇 일군만이 아니라 부서성원전체를 참가시켜 품을 들인것이다.

담당지도원모두를 데리고 2중3대혁명붉은기단위 판정중인 평양피복공장에 나간 부부장 윤진동무는 여러 측면에서 참고할 점과 부족점, 극복방도까지 찾도록 하였다. 의견을 종합하여 공장일군들에게 알려주는것으로 그친것이 아니라 걸린 문제를 직접 풀어주면서 도와주어 본보기로 만들었다. 그후 공장에서 진행된 보여주기사업의 실효는 컸다.

책임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직접 맡아보는 일군의 지도능력과 역할을 높이는데도 각별한 힘을 넣었다. 책임일군들은 부원 김금희동무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문건작성방법, 총화방법 등 실무적문제들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직관물을 만들어 리용하는 문제를 발기해나섰을 때 적극 지지해주고 도와주었으며 그가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분발하도록 떠밀어주었다. 그 과정에 김금희동무는 당의 의도대로 자기 사업을 부단히 연구하면서 지도능력을 높이게 되였다.

일군들이 이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발이 닳도록 뛴 결과 눈에 띄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이전에는 업무를 내지 못하던 구역상하수도관리소 새마을작업반이 판정기준에 거의 도달하였으며 구역도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 토성제약공장, 평천일용필수품공장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걸기단위들에서 대중운동결의목표 수행속도와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그렇다. 주관부서의 역할이 기본이다. 주관부서일군들의 어깨가 무거울수록 대중운동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본사기자 김향란

결승선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룡라빠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령역에서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때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은 온갖 도전과 만난시련을 박차고 끊임없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습니다.》

룡라빠스사업소 초급당비서 김원준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의 구절구절을 새겨보며 사업소의 대중운동실태를 분석해볼수록 여러가지 빈구석들을 포착하게 되였던것이다.

뻐스실동률문제만 놓고보아도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1년전에 비해 크게 전진이 없었다.

물론 사업소의 뻐스실동률이 국가가 정해준 기준에 도달한것은 사실이였다. 사업소의 현 조건에서 이것은 대단한것이라고 종업원들은 말하고있었다. 그러나 초급당일군은 그렇게만 볼수 없었다. 사업소가 지닌 사명과 임무의 중요성으로 보나 비약하는 시대의 요구로 보나 뻐스실동률을 더욱 높이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위들에 비해 앞섰다고 만족해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초급당위원회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해하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보다 힘있게 벌리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초급당비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결승선을 출발선으로 삼고 더 높이 비약하자. 이것이 당의 요구이며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이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곧 사업소일군들과 실동률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만큼 치밀한 조직사업과 완강한 실천력을 요구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찾았다.

몇달전부터 여러가지 조건으로 가동하지 못하던 6대의 뻐스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가 벌어졌다.

대중속에 들어간 초급당일군은 사업소의 사명과 임무를 놓고볼 때 뻐스실동률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히 인민경제계획수행과 관련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정치적문제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려운성, 최치현, 최광수, 김철수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이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부속품과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걸은 길은 얼마이며 차수리를 하는 운전사들과 함께 지새운 밤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돌격전의 앞장에서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들의 헌신과 진정은 운전사들과 수리공들을 비롯한 종업원들모두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소대별, 차별로 기술혁신의 된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고압연료뽐프시험대와 도금설비가 새롭게 개조되고 대수리와 중수리도 자체로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보다 공고화되였다.

끝내 이들은 불가능하다던 기관수리를 비롯하여 각종 수리를 끝내고 발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야말았다. 이 나날은 그들모두의 심장속에 자력자강의 신념과 본때가 억세게 자리잡은 과정이기도 하였다.

불과 한달어간에 실동률 15% 증가, 이것은 놀라운 성과였다.

이 과정에 초급당위원회가 찾은 교훈이 있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해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달리지 않는다면 어제날의 선구자도 오늘날에는 시대의 기슭으로 밀려나게 된다는것이다.

결승선을 출발선으로!

바로 이것이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비약하는 오늘의 벅찬 시대의 숨결이 아니겠는가.

윤명철

◎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이 기관차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평양곡산공장, 형제산구역 신미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자!

이것은 력사적인 서한에 접한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직원, 학생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지난 기간 학부가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개선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고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많은 연구성과를 이룩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의 교시와 감사를 수십차례 받게 된것은 초급당위원회가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이다.

리광석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결의목표를 더욱 높이 세우고 대상의 특성과 심리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학부에서는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실현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을 비롯한 교육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높은 목표와 완강한 실천력으로

과자직장 설비현대화의 실현, 전반적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실현, 현대적인 분석기지 구축, 양어장건설…

이것은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는 평양곡산공장 초급당위원회가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고 갱신한 결의목표들이다.

로동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다른 단위보다 뒤떨어진 열관리직장을 본보기로 되게 하기 위하여 초급당위원회는 이 단위에 대한 지도를 심화시키는 한편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고있다.

일감은 방대하고 조건은 어렵지만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당, 행정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아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게 함으로써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게 하고있다.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청년동맹원들과 농근맹원들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갈 때 더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

이것은 지난 기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형제산구역 신미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가 얻은 귀중한 경험이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동맹조직들이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였다.

얼마전 양어장이 새로 건설되게 된것도 청년들이 3대혁명수행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척후병, 돌격대가 되도록 힘있게 떠밀어준 당조직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이곳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된 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준다.
—선교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남포항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남포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남포항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25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강종관 륙해운상, 관계부문, 남포항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남포항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남포항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영광의 사적단위이며 대외무역과 나라의 해상운수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기업소이라고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4(1945)년 12월 26일 남포항을 창립하여주시고 20여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대외무역항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주체36(1947)년 4월 13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남포항에 뜻깊은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포항을 10여차례나 찾으시여 항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수많은 현대적인 항만설비들과 륜전기재들을 보내주시였으며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항건설을 다그치고 화물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도록 고무격려하여주시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당중앙은 남포항을 현대적인 무역항으로 건설하여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명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으며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하여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포항은 창립후 지난 70년동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연혁을 새기며 나라의 믿음직한 대외무역기지로 강화발전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남포항에서는 항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최근 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과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일심단결된 선군조선의 모습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항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현대적인 40t짐함기중기를 우리 힘과 기술로 제작설치한것을 비롯하여 10여건의 국가발명과 500여건의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화물통과능력을 훨씬 높이고 국가에 큰 리익을 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남포항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충정과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온갖 지혜와 정열을 바쳐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남포항 항장 박준호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최영준, 부두 4대 대장 양인수, 부두 1대 초급당비서 송정현이 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하문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높은 실적으로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혁명동지, 전우가 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항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 후방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모든 종업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힘찬 투쟁을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다음해 산림복구전투준비를 실속있게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에서 산림조성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산림복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단계별목표를 면밀히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특히 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산림조성과 보호관리계획을 세운 일군들은 모든 단위들에 다음해 나무심기준비과제를 정확히 주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도의 산림부문 일군들은 시, 군양묘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는것과 함께 다음해에 심을 나무모생산과 나무심기준비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결과 안악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 모체양묘장들이 보다 훌륭히 개건되고 수천만그루의 나무모를 확보해놓았으며 근 1 000만개의 구뎅이파기, 1 500여정보의 풀두둑짓기, 2 100여만개의 나무모영양단지생산을 비롯하여 다음해 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도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대중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해주시, 강령군, 안악군, 태탄군, 신원군, 송화군들이 다음해 봄철나무심기준비사업을 잘하였다.

해주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푸른 숲 우거질 조국산천의 래일을 생각하며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여러 산지들에 풀두둑짓기를 진행하여 그 어떤 큰비에도 흙이 씻겨내리지 않게 정리하였다.

송화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나무구뎅이파기에 떨쳐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성과가 오를수록 일군들은 나무구뎅이파기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기술적지도를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나무구뎅이파기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안악군의 일군들도 다음해에 심을 나무모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었다. 군의 산림부문 일군들은 나무모밭들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다음해 봄에 심을 나무모를 충분히 마련하고있다.

강령군, 태탄군, 신원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나무구뎅이파기와 풀두둑짓기를 본때있게 내밀어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특파기자 박철

홍건도간석지 3호방조제 외벽장석공사 결속

홍건도간석지 3호방조제 외벽장석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수만㎥의 3호방조제 외벽장석공사가 끝남으로써 방조제의 안전성을 보다 높이고 다음단계공사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건설자들과 일군들은 3호방조제 외벽장석쌓기에서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열의안고 맹렬한 돌격전을 벌려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장송, 석화, 곽산,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의 로동계급은 한㎥에 돌을 쌓아도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사,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3호방조제가 그 어떤 해일에도 끄떡없도록 하기 위해 공사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착암공들은 더 많은 돌을 보장하기 위한 발파들을 련속 진행하여 공사가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책임성을 높이였다.

다사, 청강기계화사업소의 운전사들은 자검자수체계를 세우고 자동차들의 실동률을 최대한 높여 수송성과를 확대하였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건설자들과 일군들은 황철로동계급의 애국의 호소에 화답하여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할 일념안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황철로동계급의 호소에 발맞춰 승리의 5월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우리는 영웅조선의 로동계급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황철로동계급의 호소문이 발표된 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나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안고 전국의 로동계급을 불러일으킨 황철로동계급의 호소는 지금 조국땅 방방곡곡에 료원의 불길로 타번지고있다.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인 무산광산련합기업소로부터 분계연선의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에 이르기까지 로동계급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맹렬한 돌격전이 벌어지고있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의 이 밤에도 자력갱생의 무쇠마치를 휘두르며 생산적앙양을 일으켜가고있는 우리 로동계급, 그들은 어떻게 증산의 동음을 울려가고있는가.

지금도 눈에 삼삼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평양메기공장의 양어못에서 펄펄 뛰는 메기들을 받아안고 감격에 목메여 울고웃던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모습이.

그 사랑의 메기들을 받아안던 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혁신자직포공처녀는 뜨겁게 흐르는 눈물속에 웃음지으며 말했다.

이 땅에서 로동계급이 된 난 얼마나 행복한가. 날마다 나의 작은 가슴에 와닿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가.

한걸음에 천리를, 두걸음에 만리를 가는 준마처녀의 위훈으로 보답하리라. …

이것은 그의 심장에서만 불타는 맹세가 아니였다. 온 나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쇠물과도 같이 보답의 맹세가 끓어번지고있다.

호소문이 발표된 후 조국땅 방방곡곡의 로동계급이 련이어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것을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호소한 황철의 로동계급이 선철생산능력을 종전보다 2배로 끌어올리고 모든 계통을 국산화, 현대화한 산소열법용광로에서는 붉은 쇠물이 세차게 끓고있다.

얼마전 대안의 로동계급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짧은 기간에 원추판과 굽은판들을 생산하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보내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으며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황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새형의 압축기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의 앙양된 투쟁열의속에 12월에 들어와 화물수송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더 늘어났다.

평안남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123%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도 2년분,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준마처녀들이 태여났다.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크나큰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고저 100%, 150%도 아닌 200%, 300%의 목표를 걸고 날으며 사는 준마처녀들,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속에 일 잘하는 보배, 혁신자집단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그들의 담찬 모습은 우리 가슴을 얼마나 세차게 울려주는것인가.

그들이야말로 당당히 우리 시대 로동계급, 선군조선의 로동계급이라고 말할만 하다.

이런 로동계급이 있어 아니 이 나라의 굴지의 기계제작기지로부터 두메의 림산작업소에 이르기까지 경제강국의 기둥을 떠받들며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있는 힘있는 무쇠마치의 주인들이 있어 우리 조국은 그토록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의 이름이 영웅이라는 고귀한 부름과 더불어 빛나고있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이 땅우에 로동계급이 등장하여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로동계급처럼 위대한 태양의 손길속에서 창조의 마치소리 높이 울리며 보람찬 삶을 이어온 그런 로동계급은 이 세상에 없다.

새 세대 로동계급은 잊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의 기적들을 창조해내던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철한 정신, 애국충정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고 우리의 힘을 의심하며 흰소리치던 거만한자들의 코대를 꺾고 두줄기 궤도우에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린 전세대 로동계급이였다.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높이 울리며 굴착기며 양수기, 자동차, 뜨락또르들을 련속 만들어낸 우리 로동계급이였다.

1970년대, 1980년대, 최악의 역경이 겹쌓이던 어려웠던 시기 우리 로동계급은 고난의 언덕을 연길폭탄정신, 군자리정신으로 헤쳐왔다.

간고한 혁명의 길우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당중앙을 앞장에서 결사옹위하고 거세찬 증산의 동음으로 조국에 비약의 숨결을 더해준 로동계급, 당 제6차대회를 앞둔 그때에도 우리 로동계급은 이렇게 투쟁하였다.

10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1980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낸 자랑을 안고 당대회를 맞이하였다.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은 지금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여 나아가는 새 세대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새겨지고있다.

황철로동계급의 호소문에도 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후대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빛나는 영웅서사시의 창조자로 우리 세대를 영원히 추억하게 최대의 속도로 질풍쳐 내달리자, 이것이 바로 우리 로동계급의 본분이고 투쟁기세이다.

당 제7차대회까지는 불과 몇개월 남지 않았다.

이 나날에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선군조선의 로동계급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힘이 총폭발할 때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세계를 내다보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려는 크나큰 포부와 목표를 세우는것, 누구나 투철한 자주정신과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집단이 떠받드는 로동자발명가가 되고 창의고안명수가 되며 공장의 보배가 되는것, 바로 여기에 선군조선의 로동계급의 존엄과 영예가 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고귀한 사명이 우리 로동계급을 부르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초병,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수, 경제발전의 밑뿌리…

어머니조국이 준 그 고귀한 칭호들마다에 선군조선의 로동계급이라는 크나큰 영예가 력력히 빛나고있다.

우리는 선군조선의 로동계급, 붉은 기폭에 인민의 모습으로 새겨져있는 우리 당마크에 바로 로동계급을 상징하는 마치가 있거늘 세계가 보란듯이 자력갱생의 행진곡을 세차게 울리자, 선군조선의 로동계급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자!

본사기자 오은별

새 삶의 자욱을 자랑하라

2.8직동청년탄광 9갱 굴진3소대 굴진공들

2.8직동청년탄광에 가면 온 탄광이 보배로 떠받드는 19명의 굴진공들이 있다.

오늘은 누구나 사랑하는 혁신자, 보배들이지만 어제날에는 부모형제들앞에, 학창시절의 스승과 동무들앞에 얼굴을 들고 나설수 없었던 사람들이였다.

그들이 인생의 새 출발을 한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회없이 한생을 빛나게 살자면 청춘시절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류철남동무를 비롯한 19명의 청년들은 지난날의 죄를 씻을 결의를 안고 한날한시에 직동으로 탄원하여왔다. 탄부의 첫걸음을 내디디던 날 목에 걸어주는 꽃목걸이를 사양하며 그들은 일군들과 탄부들에게 말했다.

진짜배기탄부가 되어 떳떳하게 꽃다발을 받겠다고.

그들속에는 고향이 직동인 사람도, 탄광일을 해본 사람도 없었다. 가슴속에 넘치는것은 한몸을 부서서라도 나라앞에 떳떳한 탄부가 되려는 맹세뿐이였다. 이런 그들을 위해 탄광에서는 보금자리도 마련해주었고 생활용품도 안겨주었으며 조건이 좋은 탄밭도 내여주었다. 경험이 많은 오랜 기능공들도 붙여주었다.

첫 굴진을 한 날이였다. 아직 굴진에 서툴어 그날실적은 0.2m, 하지만 그들은 소대작업일지를 들려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기들이 흘린 땀과 노력으로 조국이 그만큼 전진했다는 로동의 보람과 희열을 난생처음 느꼈던것이다. 기쁨을 금치 못하는 그들앞에 소대장 류철남동무가 나섰다.

0.2m, 이것은 기쁨이며 수치이다. 남들은 한교대에 1m씩 하는데 우리도 두배, 세배로 일하자.

그의 제의에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차츰 손에 설던 굴진작업도 익숙되고 일 작업생산계획수행률도 올라갔다. 매달 진행되는 혁신자축하모임에서는 그들 소대원이 축하의 꽃다발을 받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였다.

기세좋게 굴진해가던 그들의 앞에 난관이 가로놓였다. 막장에 암반이 아니라 진흙층이 생겨났던것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이 조성되여 굴진공들은 동발을 한대한대 세우면서 굴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소대원들은 그만 사기를 잃고 일손을 놓고말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소대장 류철남동무의 심정은 착잡했다.

문득 그의 머리속에 결사관철의 정신만 있으면 뚫지 못할 난관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다고 하던 탄광일군의 말이 떠올랐다.

류철남동무는 소대원들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들중에는 당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다른 소대에선 이런 때마다 당원들이 결사대를 뭇고 돌파구를 연다지만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재생의 첫걸음을 뗀 우리들모두가 결사대원이 되여 막장을 뚫자는것을 호소합니다.》

뒤이어 막장을 뒤흔드는 착암기소리가 울렸다. 한몸이 그대로 동발이 되고 암반을 뚫는 착암기가 되려는 그들의 열의로 굴진3소대는 가로놓였던 난관을 굴함없이 헤쳐나갔고 그달계획도 초과하여 수행할수 있었다. …

이런 혁신의 날과 달을 수놓으며 그들은 자랐다. 진짜배기탄부가 되였다. 그 나날에 우리 당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친필도 받아안았고 류혁철, 김영호, 리광민, 류충혁동무들은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 지니였다.

버럭돌과도 같이 인생길에 파묻혔던 자기들을 따뜻이 품에 안아 새생의 봄빛을 안겨준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그들은 조국과 인민이 바라는 참사람이 되였다.

지난 6월 30일 그들 소대는 올해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황철로동계급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금 이 시각도 석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려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조선로동당원으로, 공훈탄부로 참된 삶을 이어갈 직동의 19명 굴진공들의 모습을.

본사기자

값높이 새겨가는 발자욱

서평양기관차대 평천화력대대 수송전사들

얼마전 서평양기관차대 평천화력대대에서는 예비부속품 및 기공구전시회가 열리였다. 중대별로 그쯘히 갖추어놓은 전시품들을 돌아보는 대대장 림원길동무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대대에서 처음으로 예비부속품 및 기공구전시회를 조직하였던 10년전의 일이 떠올랐다.

전시회라고 자그마한 책상을 두어개 맞추어 식을 갖추어놓았지만 텅 비다싶이하였던 전시탁, 얼굴을 들지 못하고 목을 움츠리고섰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자기들이 출품한 전시품앞에서 어깨를 쭉 펴고 서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갈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달마다 어김없이 진행된 예비부속품 및 기공구전시회, 그 나날 림원길동무는 대대수송전사들의 불타는 열정을 뜨겁게 안아보기도 하였다.

언제인가 새해를 앞두고 예비부속품 및 기공구전시회를 조직했을 때였다.

첫 전투를 앞두고 진행된 전시회인지라 대대성원들의 열성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출품된 예비부속품들과 기공구들만 보아도 증송의 기적소리가 막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런데 전시회에 몇몇의 기관조사들이 빠지였다.

모두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는데 그들이 대대에 나타난것은 한시간후였다.

부속품이 가득 들어찬 배낭을 메고 시간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머리를 숙인채 서있는 그들에게 《철도에서 규률은 생명이요.》라고 그루를 박았지만 림원길동무의 마음은 후더워올랐다.

전시회를 진행할 때면 늘 오랜 기관사들의 뒤전에 쓸쓸히 서있던 애어린 청년들이였다. 그들이 얼마전에는 대대에서 조직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에서 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그들처럼 값높은 자욱을 새겨가겠다고 열렬히 토론하지 않았던가.

어찌 그들뿐이랴.

자기들이 애써 장만해놓았던 예비부속품도 다른 기관차에 아낌없이 맞추어주며 무사고주행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준 고봉철, 김철준동무를 비롯한 책임기관사들, 고령의 몸이지만 수송전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새 세대 기관사들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비부속품이 어떤것인가도 가르쳐주고 구배가 심한 구간에서 첨승도 하면서 변함없이 한길을 걷고있는 리구룡전쟁로병과 한옥남로인.

누가 보건말건 두줄기 철길우에 충정의 자욱을 묵묵히 새겨가는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사람은 생의 자욱을 어떻게 새겨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이였다.

예비부속품 및 기공구전시회와 더불어 평천화력대대는 탁상볼반과 탁상선반, 100t수동자끼, 30t유압자끼 등 여러가지 지구와 장비들을 자체로 갖추어놓고 수리중대에 가야만 하던 림시수리도 몇시간동안이면 할수 있게 되였다.

이들이 무사고로 주행한 거리를 아는 사람은 있어도 예비부속품과 기공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걸은 걸음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길에 보석같은 삶의 자욱을 새겼다.

값높은 생은 어머니조국에 바친 위훈의 자욱으로 남는것이기에.

본사기자 신현규

한걸음에 천리, 두걸음에 만리를

황철로동계급의 피끓는 호소에 화답하며 승리의 5월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한걸음에 천리, 만리를 주름잡으며 혁명의 머나먼 길우에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빛나는 전통을 년대와 세기를 이어 계승해나가려는 불타는 열의가 끓어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우리 혁명의 장구한 력사우에 위대한 전환의 년대로 기록된 1970년대, 그때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리높이 구가한 당보의 정론 《위대한 전환의 해, 세기적사변들로 충만된 1974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어제가 옛날로 되게 하고 래일의 리상이 오늘의 현실로 되게 하는 질풍같은 속도, 한달음에 천리, 만리를 달린다는 옛말에서나 들을수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속도전〉의 조선에서 전설 아닌 현실로 우리 근로자들에 의해 창조되고있다.》

현대적인 내연기관차며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 특대형선반과 같은 자력자강의 산아들이 련이어 태여나던 그때 우리의 농업은 당시 평균 벼 정보당 수확고에서 세계최고수준돌파라는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조국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여가던 그날의 정신과 기백은 년대와 세기를 넘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나라의 종합적국력의 상징인 인공지구위성도 단숨에 쏴올리고 수천세대규모의 웅장한 거리도 1년사이에 일떠세우는 조선속도는 천리마의 전통과 속도전의 기상을 이어받은 선군시대 군대와 인민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의 속도인것이다.

백두산영웅청년신화의 주인공들이 다음해 청년절까지 수행하게 되여있던 공사과제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전으로 끝낼 기세높이 돌격전을 벌리고있을 때 3중세계선수권보유자의 영예를 지닌 엄윤철선수가 기자들앞에서 한 말은 얼마나 의미심장한것인가.

남들이 금메달을 향하여 뛰여간다면 나는 날아가겠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힘과 속도로 세계를 앞서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이 말속에 그대로 어려있는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전통은 참다운 계승을 낳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천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의 자욱을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새기는 심정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날을것이며 그 길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세계에 류례없는 영광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승철진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로 생산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대동강전기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이 2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선교구역녀맹위원장 리애란, 락랑구역 승리1동초급녀맹위원장 홍성숙, 선교구역 산업2동 녀맹원 림복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의 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또 한분의 희세의 천출명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선군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끊없이 이어지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사는 변함없이 흐르고 장군님은 우리 당과 혁명의 수령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장약되고 우리 식의 위력한 타격수단으로 장비된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며 군력강화에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군인가족녀성들에게 총잡은 남편들의 부사수라는 크나큰 영예를 안겨주시며 선군혁명의 길에서 우리 녀성들이 최고사령부와 숨결을 같이 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선군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고 국방력강화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각급 녀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전동맹을 경애하는 원수님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폐막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경기대회기간 모든 선수들과 감독들은 축구, 빙상호케이, 속도빙상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서 우리 식의 경기전법을 적극 활용하고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종목들의 기술수준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폐막식이 25일 빙상관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경기대회성적이 발표되였다.

단체종합에서는 대성산체육단이 우승하였으며 소백수체육단, 사자봉체육단이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우승컵, 메달들이 수여되였다.

김영훈체육상은 폐막사에서 모든 체육인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총진군에 발걸음을 맞추어 국제경기마다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탄부들이 자랑하는 우리 과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동지애는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자기희생정신이고 동지에 대한 끝없는 헌신입니다.》

고건원탄광이 석탄증산의 불길높이 힘차게 전진하던 지난 3월 어느날이였다.

나날이 늘어나는 석탄생산에 동발을 믿음직하게 앞세우기 위하여 늘 앞채를 메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던 탄광자재과장 강기황동무는 그날도 갱목채벌현장에서 생산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다.

련속 넘어지는 통나무들, 시간이 다르게 높아가는 나무무지…

절로 흐뭇해지는 마음으로 중간토장으로 향하는 통발나무를 실은 뜨락또르의 운행을 지휘하던 강기황동무의 두손이 허공에서 굳어졌다. 산중턱 중간토장에 쌓아놓은 나무무지에서 통나무 한대가 비탈진 곳으로 데굴데굴 굴러내리는것이 아닌가.

점차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 통나무, 그 아래에서 나무베기에 여념이 없는 갱목중대원들, 그 모습들을 일별한 강기황동무는 지체없이 자기 몸을 내댔다.

《앗, 피하라!》

뜻밖의 다급한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갱목중대 당세포비서 김인철동무를 비롯한 중대원들이 마구 치달아올라갔다.

한몸을 내대여 굴러내리는 육중한 통나무를 멈추었건만 강기황동무는 그밑에 깔린 왼쪽다리를 뽑지 못한채 쓰러져있었다.

《과장동무!》하고 통나무를 치우며 와락 안겨드는 중대원들을 바라보며 강기황동무는 애써 미소를 머금었다. 신음소리대신 오히려 《다들 무사하니 됐구만. 그럼 어서 동발나무를 갱으로 보내야지.》하고 나직이 말하는 그를 보며 중대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것이 고건원의 탄부들이 우리 과장이라고 부르며 자랑하는 강기황동무의 참모습이였다.

대형권양기 전동기메탈보수때에는 새로운 용착방법을 착상도입하여 새 기술도입증서를 받았으며 합리적인 첨가제를 만들어 용접봉의 질을 높임으로써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한 그는 석탄증산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제대군인 박동무의 아들 첫돌에는 색동저고리를 안고, 공로자 엄동무의 생일날에는 솜옷을 안고가 축하해주었고 김종성동무가 수술을 받을 때에는 보약재들과 영양식료품을 마련해주어 그와 안해를 울리였다.

뜨거운 인정미와 불같은 동지애, 남다른 헌신의 마음을 지닌 이런 그였기에 위급한 순간 동지들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댈수 있었던것이다.

본사기자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7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기관차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사이의 남자롱구 1급 도전경기가 있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영원히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싸우리라!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려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투쟁에서

조선의 상징,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그 이름도 빛나는 백두산은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결사관철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로 키우는 삶의 메부리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총연장길이 1 768m에 2 382개의 화강석계단돌이 놓고 긴 돌다리로 이루어진 돌계단, 백두산정에서 천지호반으로 뻗어내린 개건확장된 백두산천지돌계단이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려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의 영웅적위훈을 전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눈이 덮이여 백두산천지돌계단은 보이지 않지만 돌격대원들이 간고했던 건설공사의 나날에 남긴 사진들과 비물에 젖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일기장들을 펼치면서 우리는 이 글을 쓴다.

새 길은 이렇게 열렸다

지난 5월 깎아지른듯 한 계곡들에는 흰눈이 남아있고 바위들과 돌들이 돌강처럼 펼쳐진 백두산악의 험준한 길을 한치한치 더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다름아닌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려단 정치일군인 김호길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이였다.

이 계절 삼지연읍에는 북방의 아름다운 꽃들이 앞을 다투며 피여나고 산나물이 한창이지만 백두산은 아직 겨울이였다.

려단에는 백두산천지돌계단을 보수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오래전에 백두산에는 천지로 내려가는 나무계단이 있었다. 그후 그 계단은 돌계단으로 바뀌였지만 그것도 백두산의 엄혹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적지 않게 파손되였다.

해당 부문의 설계가들이 작성한 설계를 놓고 돌계단을 조사하는 김호길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돌계단이 들어앉은 지대의 경사도나 돌사태가 내릴수 있는 장소를 보아도 돌계단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였다. 결정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대로 돌계단을 새로 놓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려단장 박재석동무와 함께 현지답사길을 이어나갔다.

김호길동무는 천지의 아스라한 산발들과 계곡들이 한눈에 안겨오는 큰 바위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다.

《온 백두산발을 샅샅이 훑어서라도 길을 찾읍시다. 우리가 바라는 길이 어데인가 반드시 있을것입니다.》

이러하여 또다시 수차에 걸쳐 현지답사가 진행되였다.

오늘은 장군봉에로, 래일은 향도봉에로, 다음날은 비로봉에로 현지답사길을 이어가는 그들의 머리속에는 늘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쌍안경을 드시고 천지를 유심히 바라보시며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백두산천지와 같이 2 750m나 되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크고 깊은 호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천지가 나타나게 사진을 찍어야 의의가 있다고 하시였다. 그 순간 일군들은 그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운 천지호반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책감에 모대기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수수천년 백두산의 주인, 절세의 위인들을 목마르게 기다려 자기의 청신한 푸름과 아름다운 절경을 끝없이 펼쳐보이던 백두산천지!

이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에 자주 오시는데 올해에 또 오시면 백두산천지에 모실수 있게 전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결심이 그들의 심장을 세차게 쳤다.

이들은 마침내 종전의 돌계단이 자리잡은 위치가 아닌 비로봉쪽에서 통로를 찾아내였다. 그들은 강사들과 삭도운전공들, 기상관측일군들을 비롯한 백두산일대의 지형을 잘 아는 이 고장 주민들과 함께 현지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동행한 삼지연군의 한 일군이 무릎을 치며 비로봉방향을 가리켰다.

《정말 묘한 통로를 찾았습니다. 찬찬히 보십시오. 돌들에 이끼가 덮여있습니다. 굴러내리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지역에 돌사태가 없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김호길동무의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이 길을 찾자고 돌은 백두산의 아스라한 칼바람들과 계곡들은 그 얼마였던가.

려단지휘성원들은 백두산천지공중련계삭도 향도역건물안에서 내각과 618건설돌격대중앙지휘부를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내각의 한 일군이 미더운 눈길로 려단지휘성원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종전의 돌계단을 무시하고 통채로 다시 놓겠다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한 일군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새 돌계단을 건설하자면 종전에 비하여 길이가 퍽 연장되고 공사량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명백히 따지면 공사는 2년분과제입니다.》

정치부장과 려단장의 타는듯한 눈길이 서로 마주쳤다.

박재석동무가 짧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였다.

《믿으십시오.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꿈결에도 그 품을 그리며

백두산기슭의 화창한 6월이였다.

삼지연읍거리로 솜옷을 입은 돌격대원들이 탄 자동차들이 백두산정을 향해 꼬리를 물고 달리고있었다.

벌방에서는 벌써 여름이지만 백두산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었다. 공사과제는 방대한데 1년내내 거의나 눈이 덮여있다싶이 하는 백두산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서 3개월정도였다. 그나마 매일처럼 억수로 쏟아지는 비와 때없이 몰아치는 세찬 바람, 창창하다가도 한치앞을 가려볼수 없게 끼는 짙은 안개와 구름으로 하여 실지 일할 날은 많지 못했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아직도 눈으로 메워져있었다.

결정적으로 공사기일을 보장하자면 눈이 녹기를 기다릴수 없었다. 려단에서는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부터 개척하기로 하였다. 느닷없이 사나운 눈보라가 그들을 덮치였다. 그런 날이면 돌격대원들의 몸은 온통 눈투성이였다.

곧 려단지휘부의 전투명령이 하달되였다.

함경남도인민보안국대대는 백두산정에서 천지로, 자강도인민보안국대대는 천지에서 백두산정으로 마주 향해 공사를 진행할것, 남포시인민보안국대대는 룡강군에 있는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계단돌들을 생산하여 백두산까지 수송할것.

숙소를 전개할새 없이 돌격대원들은 이전 돌계단에서 쓸수 있는 철물들을 회수하여 다시 가공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비탈길을 째는듯 한 칼바람소리는 함마질소리마저 삼켜버렸다. 매일다싶이 억수로 퍼붓는 비, 절벽에서 총알처럼 튀여나오는 돌조각들…

바람이 어찌나 센지 몸이 다 날려갈 정도였고 돌에 닿은 장갑은 며칠 안있어 해졌다. 신발밑창도 오래 가지 못하였다. 기압이 낮아 가마뚜껑에 큼직한 돌을 올려놓지 않으면 밥이 설기 일쑤였다.

그러나 백두산의 칼바람에 몸을 담고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는 돌격대원들의 심장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백투되고있었다. 함경남도인민보안국대대 강금범, 박은철, 최청혁, 자강도인민보안국대대 전영향, 최광성, 김철호…

그들모두가 하나같은 위훈의 창조자들이였다.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쓰고 어깨에 푸른 견장을 단 젊은이들은 보통때에는 엄두조차 못내던 계단돌들을 등에 지고 백두산을 한치한치 톺군 하였다. 맨몸으로 천지기슭까지 한번 내리고 오르기도 힘든 그 길로 이들은 매일같이 그렇게 육중한 계단돌들을 져날랐다.

기압관계로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백두산에서 그 무거운 계단돌을 등에 지고 가파로운 경사면을 한발자국한 발자국 톺는 돌격대원들의 그 초인간적인 힘은 과연 어디서 솟구친것인가.

돌격대원들이 남긴 일기장이 그 힘의 원천에 대하여 전하고 있었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 《백두산천지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실 그날을 그리며》…

진정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영원한 조선의 정신으로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자나깨나 그리며 살며 일하였기에 그들은 보통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백두산의 장수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계단돌운반만이 아니였다. 온통 절벽과 벼랑이여서 기계수단과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없는 조건에서 그들은 등짐으로 세멘트와 혼석, 환강을 비롯한 800여t에 달하는 물동을 져날랐다.

무게가 2t이 넘는 대형트라스를 통채로 경사면으로 끌어올리던 지난 7월초였다. 그날 백두산에는 때아니게 눈이 내렸다.

종일 쏟아지는 진눈까비를 맞으며 함경남도인민보안국대대 돌격대원들은 대형트라스에 쇠바줄을 감아 수동권양기로 당기며 한치한치 움직여나갔다. 그러다 자칫 잘못하여 대형트라스가 경사면으로 미끄러져내리면 다시 끌어올리기를 그 몇번, 이렇게 200m정도 되는 거리까지 대형트라스 하나를 옮기는데만도 보통 반나절이 걸렸다.

하지만 맥을 놓고 주저앉는 돌격대원은 없었다.

자강도인민보안국대대가 맡은 구간에는 돌이 때없이 굴러내렸다. 천연암반같이 단단한 영구동토대를 들부시며 강철구조물을 세울 기초구뎅이를 파놓으면 하루밤사이에 수백m³의 돌이 굴러내려 구뎅이들을 메워버리군 하였다. 그러나 돌격대원들은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싸워이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다시 구뎅이를 팠고 나중에 구뎅이주변에 돌《제방》을 쌓고 기어이 기초콩크리트를 쳤다.

그들은 전투장에서 숙소까지 가는 시간마저 아까와 걸으면서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웠고 작업장에서 비닐박막을 치고 쪽잠에 들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함경남도인민보안국대대 대대장 로성수동무는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대대정치부장 함수용동무가 그를 삼지연군 소재지의 대대병실로 떠밀었다.

그러한 대대장이 새벽녘 대대정치부장앞에 다시 나타났다.

함수용동무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찌자는겁니까. 대대장동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다진 맹세를 관철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쓰러진단 말입니까. 일없습니다. 날 여기 전투장에 그냥 남게 해주십시오.》

대대장을 와락 껴안고 함수용동무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한 그들의 가슴속에 끓어번진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하루빨리 백두산천지돌계단을 완성하였다는 충정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그 한생각뿐이였다.

이렇게 온 대대가 아니 려단이 영광의 그 시각에 초침을 맞추어가며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일하였다.

이러한 려단전투원들을 최영철동무를 비롯한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 일군들과 내무군기동예술선전대원들이 화선식정치사업,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그리고 함경남도, 자강도인민보안국의 책임일군들과 인민보안원인 박봉철동무와 그 가족, 내무군군인 박권혁동무와 그의 부모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보안원들과 가족들이 수천리길을 달려와 성심성의를 다해 원호하였다.

천지물은 어찌하여 맑은가

백두산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멀리 룡강땅에서는 화강석을 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고조되였다.

려단정치일군은 즉시 승용차를 타고 백두산에서 오석산화강석광산을 향하여 밤낮으로 달렸다.

그가 급기야 달려온 사연을 듣고난 광산일군은 머리를 저었다. 당창건 일흔돐을 앞두고 국가건설대상들에 보장해야 할 계획이 꽉 맞물려있어 반제품으로 가져가겠다던 그 돌들을 다 완성가공하기 힘들다는것이였다.

려단정치일군이 광산일군의 두손을 덥석 잡았다.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였더니 증산투쟁을 벌려 꼭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뭐 백두산의 후손들이 아닌가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진작 그 말부터 했어야지. …》

백두산의 후손! 의미깊은 말이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더욱 보란듯이 빛내일수만 있다면 결연히 떨쳐나서는것이 이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남포시인민보안국대대 돌격대원들은 광산로동계급의 증산투쟁에 합세하여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계단돌들에 대한 자르기, 다듬기, 연마를 들이댔다. 불꽃튀는 전투끝에 돌가공이 성과적으로 끝나고 백두산을 향하여 돌가공품을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출발준비를 갖추었다.

광산로동자들은 2천리가 넘는 멀고 험한 길을 가자면 자동차에 실은 계단돌들이 서로 부딪쳐 손상될수 있다며 걱정을 하였다.

남포시인민보안국대대 정치부장 서성국동무는 속이 부질부질 끓었다.

(적재함에 돌을 한벌깔고 실어나른다면 공사기일은 어떻게 보장한단 말인가. 우리 동무들이 분초를 다투며 기다리고있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린 분초가 새롭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자동차적재량만큼 계단돌을 싣되 포장을 든든하게 하여 돌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게 하자는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나이지숙한 한 로동자가 한마디 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그 마음이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 계단돌들을 적재함밑바닥에 한벌 깔고 그우에 각목과 판자를 놓고 또 계단돌을 놓고 돌들사이사이에 판자나 지함종이들을 끼워넣어봅시다.》

백두산으로 달리는 오석산화강석광산 로동계급의 마음은 뜨거웠다.

자동차들이 출발하였다. 후치령과 매덕령 등 북방의 높은 령들과 고개들을 넘고넘으며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장군봉방향으로 톺아오를 때였다. 차가 뒤로 지치는 순간 돌격대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차바퀴에 서슴없이 어깨를 들이밀었다. 무비의 희생정신을 발휘한 돌격대원들의 투쟁으로 하여 마침내 첫 차가 장군봉의 돌계단공사장에 올라섰다.

9월에 들어서면서 공사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돌격대원들의 손끝에서 번개불이 일게 하였다. …

그달초 어느날 천지호반에서는 90일간의 전투를 총화하는 모임이 있었다.

하지만 전투원들은 서둘러 만세를 부르며 완공의 기쁨을 터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피와 땀이 스민 창조물에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을세라 눈여겨 살피며 층층돌계단에 묻은 쌀알만 한 세멘트몰탈흔적마저 말끔히 없애고있었다. 이날을 위해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달려온 이들은 완공의 그 순간에도 자기들의 창조물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고있었다.

천지의 푸른 물이 출렁이는 기슭에서부터 흰구름 두둥실 떠가는 백두산마루로 연연히 뻗어오른 천지돌계단, 천지물이 그토록 맑고맑은것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 그렇듯 순결해서가 아니겠는가.

백두산천지돌계단, 이는 진정 자나깨나 뵙고싶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그리며 힘겨운 날과 달들을 웃음으로 헤쳐온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의 뜨거운 숨결, 깨끗한 마음이 떠올린 충정의 결정체였다.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용암마냥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려단 돌격대원들의 진할줄 모르는 열정에 떠받들려 백두산천지돌계단은 이렇게 완공되였다.

＊ ＊

2년분과제를 90일동안에 끝내고 당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맞이하였던 인민보안부려단 돌격대원들은 지금 백두산천지돌계단을 건설하던 용감무쌍하였던 그때의 그 정신으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살림집건설에서 또다시 위훈을 떨치고있다.

간고했던 그 나날 백두산에서 더욱 억세여진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에 넘쳐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높은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태양의 성지에 굽이치는 충정의 마음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도덕의리심이 더욱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갖 지성과 정열을 다 바쳐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며 수령님과 장군님을 태양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는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앞장서고 있다.

륙해운성 국장 홍승철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응당한 본분이며 마땅한 도덕의리라고 하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수백점의 기공구들과 많은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었다.

리과대학 조종과학부 실장 리성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태양의 성지로 소중히 간직된 금수산태양궁전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훌륭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많은 설비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각지의 근로자들도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영원한 어버이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주변관리사업에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고있다.

청년전위신문사 기자 리기홍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길에 태양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많은 설비와 자재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모란봉구역인민위원회 아래단위 로동자 박경심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금수산태양궁전주변관리사업에 필요한 기재들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모란봉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통역원 김철룡, 평양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로동자 김일철도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였다.

이밖에도 평양산원 의사 김영의, 옹진군 읍 128인민반 림춘실 등 많은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성의껏 마련한 많은 설비, 자재들과 후방물자들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인 청소년학생들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주변관리사업에 깨끗한 마음을 바치고있다.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학생 조명순, 파일군 파일고급중학교 학생 정억길은 2013년 7월 수령영생의 대화원으로 훌륭히 꾸려진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사업에 자신들도 한몫 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으며 그후 많은 후방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꽃속에, 수림속에 모시고싶은 마음을 간직한 대동강구역 룡라소학교 학생 손위성은 평양단풍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수백그루의 나무들을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주었으며 회창군 회창소학교 학생들인 김강성과 김은성형제는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을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부식토와 좀매자나무를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이밖에도 락랑구역 승리소학교 학생 리현우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 사업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과 지성을 다 바치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을 안고 바쳐가는 뜨거운 지성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순결한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고결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된다.

리 신 향

자랑찬 생산실적속에 비낀 기수의 모습

사리원편직공장 지배인 공옥화동무

사리원편직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10여년간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공업생산액으로뿐아니라 현물량적으로도 빛나게 수행하고 있다.

생산능력으로 볼 때 편직공업관리국적으로 크지 않은 단위이지만 해마다 뜨개옷과 양말을 비롯한 편직물을 다른 공장들에 비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공장에 대한 우리의 취재길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찾아온 사연을 들은 지배인 공옥화동무는 비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종업원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이라며 총총히 현장으로 향하는것이였다.

결국 우리는 지배인과 오래동안 같이 일해온 리성일기사장을 만나는것으로부터 취재를 시작하게 되였다. 그는 지배인의 마음속에는 인민경제계획을 현물량적으로 넘쳐 수행할 생각만이 꽉 차있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올해 9월 하순 공장앞에 맡겨진 겨울용편직물을 10월중에 결속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에서 지배인은 문득 우리가 수만벌에 달하는 겨울용편직물들을 더 생산할수 없겠는가며 모두를 둘러보았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10월까지 계획된 생산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긴장한 전투를 벌려왔는데 이제 또 증산과제를 안다니?

여유가 있으면 공장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하여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의견이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둘러보며 지배인은 말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안을수록 인민생활향상과 국력강화에 그만큼 더 이바지하는것이 아니겠나요.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도 현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공장연혁사에 새겨넣읍시다.》

이렇게 되여 계획외 수만벌에 달하는 편직물들을 더 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지배인이 서있었다. 밤낮으로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생산지도를 하였고 자재를 비롯하여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해 이악하게 뛰고 또 뛰였다.

그러한 지배인의 모습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새로운 혁신과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참된 기수의 모습으로 새겨안았다. 온 공장에 전례없는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고 10월중에 계획외 수만벌에 달하는 편직물을 더 생산하는 기적이 일어나 년간 현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기사장은 지난 10여년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하여 바쳐온 지배인의 남모르는 수고의 일단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어느해 여름 평양의 어느 한 공장에 편직바늘예비가 있다는 것을 안 지배인은 지체없이 출장길에 올랐다. 그곳 일군들의 도움밑에 수십kg의 편직바늘을 해결받은 그는 지체없이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비도 오는데 후날 자재일군들을 보내라는 그 공장 일군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배인은 길을 떠났다. 무거운 짐을 머리우에 이고 차가 있는 곳까지의 10여리길, 차에서 내려 공장까지의 5리 남짓한 길을 비를 맞으며 걸어온 그를 어찌 한 공장의 지배인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으랴.

그날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지배인의 머리우에서 한점의 비방울도 새여들세라 비옷으로 꽁꽁 싸고 또 싼 무거운 짐을 안아내리며 당일군도 기사장도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양말작업반의 김순희반장은 혁신자들을 위해 바쳐온 지배인의 인정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해 겨울 양말작업반 현장을 돌아보던 지배인은 처녀혁신자인 홍설경동무의 기대가 비여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그가 출근하지 못한 리유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작업반장의 이야기를 뒤에 남기고 지배인은 인츰 다른 현장으로 자리를 떴다.

다음날 몸에 잘 어울리는 산뜻하고 맵시있는 새 솜옷을 입고 출근길에 오른 홍설경동무를 만나서야 작업반장은 전후사연을 알게 되였다. 전날 오후 홍설경동무의 집을 찾은 지배인은 집안살림살이에서 걸린 문제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 지배인이 미처 어머니구실을 하지 못하였다며 새 솜옷까지 안겨주는 공옥화동무의 품에 안기며 처녀는 《지배인어머니…》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10여년세월 혁신의 앞장에서 달려온 세타작업반의 조정실, 제직작업반의 허옥실동무를 비롯한 수십명의 처녀혁신자들에게도 지배인의 따뜻한 인정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마음속깊이 간직되여있었다.

우리와 만난 계산원 최춘실동무는 지배인의 발기에 의하여 공장구내의 빈땅을 일구어 수천평에 달하는 남새밭을 조성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거기에서 올해에는 계절에 따라 남새농사를 립체적으로 짓도록 함으로써 봄부터 가을까지 주마다 지어는 2~3일에 한번씩 종업원들이 시금치며 배추, 고추, 오이, 호박, 양파 등 갖가지 남새를 공급받았다는 계산원의 이야기는 긍지에 넘쳐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장의 주부라는 자각밑에 모든 일에서 앞장서고 종업원들과 생활상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지배인에게 저도모르게 마음이 끌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노력하여왔다고 눈물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10여년간 인민경제계획을 현물량적으로 무조건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감과 헌신성, 인정미를 지니고 아글타글 노력해온 대오의 기수로서의 지배인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만짐을 지고 뛰고 또 뛰는 이런 대오의 기수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기에 최후승리를 향한 우리의 공격속도는 더욱더 빨라질것이라는 확신을 다시금 새기며 우리는 공장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 병 춘

독자의 편지

친딸의 심정으로

저는 전쟁로병입니다. 팔순이 넘은 제가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것은 다 고마운 우리 제도의 덕택입니다.

전쟁로병이라고 생활상불편이 있을세라 앓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는 선교구역과 동의 일군들과 이웃들을 비롯하여 고마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친혈육의 정을 느끼군 합니다.

그들중에는 선교구역종합식당아래 강안식당 책임자 정경희, 당세포비서 정미란동무를 비롯한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적명절이나 기념일은 물론 휴식일, 퇴근길에도 때없이 저의 집을 찾아와 뜨거운 지성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에 대한 봉사로 바쁜 속에서도 제가 감기라도 앓을세라 늘 관심하며 건강식품이며 보약재, 별식들을 마련하여가지고 찾아와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전화의 나날 조국을 위해 피를 바친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저희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며 생활상 자그마한 애로와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구석구석 마음을 쓰는 이들은 정말 저의 친딸들입니다.

후에 알게 되였지만 이들은 저 하나만이 아닌 구역안의 여러 전쟁로병들을 극진히 돌봐주고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이런 아름다운 인간들을 키운것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고 사는 이들을 저는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선교구역 장충2동 54인민반
박 인 숙

5월의 결승선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 열의를 안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룡성베아링공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40여년을 변함없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말은 혁명초소에서 성실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신의주신발공장 프레스직장 심영애동무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랑을 안고 그는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까지 재화프레스공으로 성실히 일해오고있다.

그는 기대를 맡은 날부터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한두해도 아닌 40여년동안 변함없이 재화프레스를 제살붙이처럼 여기면서 그는 기대의 만가동보장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심영애동무였기에 고난의 시기에도 기대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두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대후방가족답게 언제나 생산계획수행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이 나날 그는 수십명의 로동자들을 다기대공으로, 로력혁신자로 훌륭히 키워냈다.

오늘도 심영애동무는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밑에 신발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은 종

겨레의 통일념원에 악랄하게 도전한 민족반역의 무리를 단죄한다

조국해방 일흔돐,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와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우리 공화국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하지만 한해가 저물어가도록 북남관계는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 전도는 더욱 암담해지고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뛴 남조선당국의 범죄적망동의 필연적결과이다.

이 한해를 돌이켜보며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도전하여 동족대결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린 남조선보수패당을 치솟는 분노를 안고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본사기자 심 철 영
본사기자 리 성 호
본사기자 장 윤 남

외세와 결탁하여 감행한 반공화국도발소동

올해에도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대결망동은 변함이 없었다. 그것은 외세와의 공조로 감행한 반공화국도발소동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남조선당국은 범죄적인 《북핵포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세와의 반공화국핵공조를 일층 강화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다.

외세와의 반공화국핵공조의 맨 앞장에는 역시 남조선집권자가 서있었다. 그는 올해의 벽두부터 《북핵》을 그야말로 외세의 자락에 매달려 반공화국핵공조를 비릴리질하는 역적질로 흘려보냈다. 3월 일본외상 등 주변나라 외교대표자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핵문제해결이 《안정적남북관계발전》과 《동북아정세안정에 기여》할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나발을 불어대며 《북비핵화의 실질적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애원한 사실, 4월 미국회 하원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문제》가 큰 《안보위협》, 《심각한 불안정요인》이라고 나발질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떠들어댄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되는 지난 4월 남조선집권자가 도처에서 유가족들의 곡성이 터져나오는데도 아랑곳없이 태평양건너 아메리카대륙에 대한 도피행각에 올라 《북핵불용》이니, 《단호하고 단합된 신호》니 뭐니 하고 악청을 돋구며 《대북압박공조》를 청탁한것은 그가 반공화국압살을 노린 외세와의 핵공조놀음에 얼마나 환장해 날뛰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올해에 남조선집권자는 기회만 생기면 외세의 옷자락을 붙들고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운운하며 꺼져가는 반공화국핵소동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발악하였다. 그는 국제회의석상에서도 대상도 가리지 않았다. 오로지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핵공조를 강화하여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려고 기를 쓰고 날뛰었다. 얼마전 유럽행각의 길에 오른 남조선집권자가 이 나라, 저 나라 수반들앞에서 치마바람을 일구며 그 무슨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역스럽게 놀아댄것은 민족의 운명도, 북남관계개선도 아랑곳없이 외세와의 반공화국핵공조에 환장해 날뛴 그의 추악한 몰골을 그대로 폭로해주었다.

웃물에서 터진 어지러운 탁류가 아래물을 통채로 흐려놓는다고 집권자부터가 외세에게 바싹 매달리며 《북핵공조》강화를 애걸하였으니 그아래것들도 저저마다 외세와의 핵공조를 떠들며 그 실현에 피눈이 되어 날뛰였다.

정초부터 세계경제연단 45차 년차총회에 코를 들이밀고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마구 걸고든 남조선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그야말로 온 한해동안 외세를 찾아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분주히 돌아치며 반공화국핵공조에 미쳐날뛰였다. 그는 입만 벌리면 《북핵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지역평화의 암덩어리》라느니, 《북의 비핵화가 없는 평화통일》에 대해 말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요란히 떠들며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또한 미국상전의 《북핵위협》타령에 맞장구를 치면서 반공화국모의판을 벤질나게 벌려놓았다. 이로 하여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북핵공조》강화를 노린 음모행동이 년중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에 대해 매국역적들은 《빛이 샐 틈도 없는 공조》라는 수치도 모르는 망발을 줴쳐댔다.

외세와 야합하여 《북핵포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범죄적인 반공화국핵공조책동은 올해에도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을 가로막고 동족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킨 주되는 요인으로 되었다.

외세와의 공모결탁으로 동족을 해치려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반역적정체는 올해에 그들이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린데서도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도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있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함께 《인권》모략책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되었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핵공조체계가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비렬하게도 동족을 터무니없이 헐뜯는 《인권》모략에 더욱 기대를 걸면서 거기에 발광적으로 매달리였다.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구실로 유엔무대를 반공화국모략공동의 판으로 만들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책동은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벌어졌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을 터무니없이 헐뜯는 《유엔인권조사보고서》의 기초로 된 인간쓰레기들의 증언이 거짓날조품으로 판명된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유엔《북인권토론회》니, 《탈북자초청토론회》니 하는것들을 도처에서 벌려놓으며 모략소동의 판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그 무슨 《북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유지》에 대해 수작질하며 유엔인권리사회 제28차회의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안》이 조작되는데 그 누구보다 적극 가담하였으며 나중에는 주제넘게 그 무슨 《권고사항리행》따위의 망발을 줴치며 외세의 하수인으로서 악명을 떨치였다.

올해에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공조하여 벌려놓은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은 서울에 유엔《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것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보수패당은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규탄과 각계층 인민들의 견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북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나발치면서 지난 6월 유엔《북인권사무소》를 기어코 서울에 끌어들이였다. 남조선당국이 부디부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는 올해의 6월에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유엔《북인권사무소》를 저들의 소굴에 설치한것은 외세와의 반공화국《인권》공조로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동족을 해치려는 보수패당의 망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올해에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반공화국《인권》모략에 적극 동조하며 민족을 반역한 범죄적망동은 《국회》에서의 《북인권법》조작책동으로 더욱 표면화되였다. 보수패당은 유엔에서는 《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미국회도 오래전에 《북인권》관련법안을 채택했는데 저들은 10년이 되도록 《북인권법》을 채택하지 못하고있다고 고아대면서 골수에 배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년중 시종일관 이를 사려물고 날뛰였다.

남조선당국이 지난 6월 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인권》문제라는것을 거들며 미일당국들과 함께 그것을 새로운 《대북압박소재》로 써먹기로 합의한것도 동족을 모해하고 압살할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매국역적들의 추악한 몰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책동에 미쳐날뛴것은 올해에 그들이 민족앞에 저지른 가장 엄중한 죄악이다.

외세와의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책동으로 그 어느해보다도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들끓어야 할 올해를 대결의 란장판으로 만든 매국노, 역적배들은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체제통일》의 개꿈을 실현해보려고

올해 3월 남조선의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욱이라는자는 기구내에 《비합의통일이나 체제통일을 위한 조직》이 존재하고있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저들이 《남북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을 비공개로 준비하고있으며 《정부》도 《체제통일》을 연구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있다고 실토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에서는 《흡수통일》의 허황한 개꿈에 사로잡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어째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는것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뜻깊은 해로 빛내이자는 우리의 력사적인 호소가 울려퍼지고있을 때 남조선당국자들의 입에서는 2015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이룩하자》느니, 어떻게 하나 《북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느니 하는따위의 도발적망발이 줴쳐나오군 하였다. 특히 남조선집권자는 력대로 그 무슨 《통일준비》니, 《통일시대대비》니 하고 지껄이였는가 하면 《북의 핵, 《인권》문제해결의 궁극적방도는 통일》이라고 떠들면서 졸개들을 《체제통일》실현에로 극구 내몰았다. 이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집권자의 추동을 받은 남조선보수패당은 온 한해동안 《통일》이후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데 대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면서 《관련법을 정비》한다, 《인권문제에 대비》한 론의를 한다 어쩐다 하며 북닥소동을 피워댔다. 올해에 《새누리당》패거리들이 각계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기 위한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어떻게 하나 통과시키려고 발광한것도, 《북의 변화유도》라는것을 떠벌이며 미국상전에 추종하여 《금융제재》의 칼을 빼든것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북인권백서 2015》라는것을 발간한것도 결국에 있어서는 《체제통일》흉계의 산물이였다.

올해에 남조선당국자들이 《통일외교》의 간판을 들고다니며 외세를 삐질나게 찾아다니며 저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는 놀음을 벌려놓은것도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 지난 9월 해외행각을 끝내고 돌아온 남조선집권자는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나갈것인가에 대해 이웃나라와 《다양한 론의를 시작할것》이라고 떠들면서 《통일외교》놀음의 서막을 열었다. 남조선외교부것들도 《통일》을 이루는데서 다른 나라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고아댔다.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체제통일》책동에 기승을 부린 남조선당국의 범죄적책동이 북남관계의 파국을 부추기고 전쟁위험만 증대시켰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나온 한해를 통해 우리 겨레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대결과 긴장을 조성하는 역적무리가 다름아닌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남조선보수패당이라는것을 다시금 톡톡히 깨달았다.

북남관계파괴자들의 흉악한 몰골

올해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뜨거운 기대와 열망은 남조선당국의 광란적인 대결망동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남조선당국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화답할 대신 년초부터 그 무슨 《진정성》이니, 《실천적행동》이니 하는 고약한 망발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입이 닳도록 《당국회담》에 대해 떠들던 그들이였지만 실지행동은 전혀 딴판이였다.

지난 1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호소문이 발표되자 남조선당국은 심히 도전적인 망동을 부리였다.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비난하는 불순한 삐라들을 군사분계선너머 우리측 지역에 살포한것이다. 그에 대한 내외의 단죄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갔지만 뻔뻔스럽게도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면서 삐라살포를 계속 묵인조장할 기도를 드러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소한 움직임마저 허용하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은 실로 비렬하기 그지없었다.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발표 15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악랄하게 가로막은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기 위한 북과 남, 해외의 지역별준비위원회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온 겨레에게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민족공동행사를 처음부터 달갑지 않게 여긴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 해외민간단체들의 실무협의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이미 합의한 행사장소를 변경시킬것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그 무슨 《순수한 사회문화교류》를 떠들면서 행사의 《비정치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허용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될수 있었던 민족공동행사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북과 남이 서로 오가며 리해를 두터이 하고 신뢰를 다지는것을 한사코 바라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정체는 조국해방 일흔돐기념 민족통일대회의 성과적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일념을 안은 온 겨레는 민족통일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여 자주통일의 굳센 의지와 기개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 북남관계개선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앞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표방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또다시 행사의 《비정치성》을 운운하며 훼방질을 일삼았다. 하여 조국해방 일흔돐기념 민족통일대회는 북과 남에서 따로따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의 골수에 꽉 들어찬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이 바로 온 겨레의 기대와 념원이 어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파탄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저해한 근원이였다.

올해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쩍하면 떠들어온 북남사이의 《대화》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도 날날이 드러났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8월 북과 남은 고위급긴급접촉을 가지고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며 대화와 협력으로 관계개선을 이룩해나갈것을 확약하는 합의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그 좋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호소에 귀를 틀어막고 외세와의 공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북남관계개선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였다.

우리의 아량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고 북남로동자축구대회가 열리는 등 일련의 협력사업들이 진행되였지만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북남합의에 명기된 당국회담은 이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야 열리게 되였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하지 않은것보다 못한 회담으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불순한 목적을 품고 회담장에 나온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정당하고 북남관계의 절실한 현안문제를 담은 제안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시시껄렁한 문제들만 고집하는것으로 회담에 인위적인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였다.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말았다.

올해에 북남관계가 겪은 모진 시련은 남조선당국이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는 그 어떤 전진도 있을수 없으며 설사 대화가 열린다고 하여도 해결될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새겨주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동족의 성의있는 노력에 도전하면서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통채로 날려보낸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극도에 달한 북침전쟁광기

올해에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초긴장상태가 거듭 조성된 사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총포성으로 파괴하며 핵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따라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이였다.

하지만 남조선호전광들은 정초부터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북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는 새해 첫날부터 전투기를 타고 돌아치며 그 누구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라고 고아댔다. 그에 이어 다음날 남조선군의 각급 부대들은 화력시범훈련이니, 혹한속에서의 생존및 극복훈련이니, 야외기동훈련이니 하는것들을 광란적으로 감행하면서 새해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살벌한 전쟁기운을 조성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올해에도 동족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도전하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었다.

실제로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환경의 마련을 위해 외세와 감행하는 침략전쟁연습을 중단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미국과의 련합체제가 존재하는 한 《훈련은 계속될것》이라는 도발적망발로 대답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쌍룡》상륙작전훈련,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 등 각종 대규모적인 전쟁불장난소동들을 련이어 벌려놓아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였다.

특히 올해에 감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그 침략성과 도발적성격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군사적도발망동이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그 무슨 《방어》훈련이라고 광고하였지만 그것은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올해 3월초부터 감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당시 호전광들은 수많은 병력과 최신공격수단들을 투입한 가운데 그 무슨 《격멸》이니, 《단호한 응징》이니 하는 폭언까지 줴치며 《북핵시설장악》, 《평양점령》을 가상한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시에는 《북의 핵, 미싸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적제거》를 위주로 하는 새로운 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15》에 따른 모험적인 훈련을 벌리였다. 이런것을 어떻게 《방어훈련》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한 남조선호전광들은 내외침략세력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까지 걸고들면서 무분별한 전쟁광기를 부리였다. 호전광들은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대해 《무모한 도발과 위협》이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군사적도발행위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달리였다.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그 누구의 《도발원점과 지휘, 지원세력을 초토화》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며 자행포에까지 기여올라가 포사격훈련을 지휘하였는가 하면 그의 뒤를 따라 해군참모총장,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이라는자들도 덩달아 관하부대들을 돌아치며 《제압》이니, 《응징》이니 하고 전쟁바람을 일으켰다.

남조선군부깡패들의 북침전쟁도발소동은 지난 8월 최절정에 달하였다. 호전광들은 8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무작정 우리와 련결시키며 반공화국심리모략방송을 재개하였는가 하면 《북포탄발사》사건까지 날조하고 그것을 구실로 전선중서부지역의 우리측 민경초소들을 향해 수십발의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당장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이 조성되였다. 내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전쟁광기를 무적의 자위적군력으로 단호히 제압하고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기필코 전면전쟁의 불길은 타번졌을것이다.

올해에 감행된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은 그것이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고의적인 도전, 계획적인 평화파괴행위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더욱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 8월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되고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합의가 이룩되였지만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호전광들은 북남사이의 공동보도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함께 《2015 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것을 사상 최대로 벌려놓아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시초부터 잡쳐놓았다.

북남관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흉심은 지난 10월 북남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제침략군의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끌어들여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감행한데서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

올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외세와 작당하여 년중 끊임없이 벌려놓은 침략적인 전쟁연습소동들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북남관계파국의 주되는 요인으로 되였다. 북남사이에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아무리 좋은 합의가 이룩되여도 남조선에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전쟁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는것이 이해의 마지막나날을 보내며 다시금 찾게 되는 교훈이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유럽동맹의 제재조치를 비난

로씨야련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과의 담화석상에서 유럽동맹의 제재조치를 비난하였다.

그는 로씨야의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럽동맹의 제재조치를 문제시하면서 그들이 제재명단에 올라야 하는 리유를 설명할것을 요구하였다.

유럽동맹이 그러한 제재가 로씨야에 그 어떤 실질적인 후과나 심리적영향을 미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오산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지역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

세네갈대통령 마키 쌀이 16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지역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하부구조건설, 에네르기개발리용, 농업 등 분야들에서 협조를 확대하는것은 지역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라고 하면서 호상 협력하여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데 대해 강조하였다.

꼬스따 리까에서 커피수확　　[조선중앙통신]

왜 한사코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 하는가

미국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이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인류는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인민들의 강렬한 요구와 기대에 배치되게 이해가 다 저물어가는 마지막말에 와서도 침략과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미국의 주되는 힘은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돌려지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하와이서남해상상공에 있는 중거리표적미싸일을 요격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태평양미싸일시험사격장에서 《SM－3》요격미싸일이 목표들을 《소멸》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번 시험이 유럽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된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12월에 들어와 로므니아에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 시설공사가 이미 완료되였다. 2018년까지 뽈스까에 신형요격미싸일 《SM－3》을 장비한 이지스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하려 획책하고있다.

핵무기의 출현에 이어 순간에 대륙과 대양을 날아가는 미싸일의 등장은 이전 쏘련과 미국사이의 긴장격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촉매제로 되였다.

미국에 뒤이어 1949년에 이전 쏘련이 핵시험에서 성공하고 1957년에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시험발사에서도 성공하였다. 미국은 당황망조해하였다. 세계를 저들의 손아귀에 걷어쥐고 제패하려는 야심을 품고있던 미국으로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 되였다.

이에 커다란 위구를 느낀 미국은 부랴부랴 《대규모보복》전략을 내놓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달라붙었다.

그후 쏘련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과 그에 맞서 세력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쏘련의 대응으로 쌍방사이에 치렬한 미싸일경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급속히 벌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쏘련을 따라잡을수 없었다. 1980년대초에 벌써 미국은 미싸일방위분야에서 쏘련에 뒤떨어지게 되였으며 미국방부문의 고위인물들도 국회 상원청문회에서 자기 나라가 핵미싸일방위분야에서 쏘련보다 10년이나 뒤떨어졌다고 아우성을 치였다.

그후 미국은 《별세계전쟁》계획이라는것을 내놓고 강경한 대쏘전략을 추진시키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랭전시기 체결하였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하고 미싸일개발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려왔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2009년 4월 저들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은 이란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중지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란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구태여 유럽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핵합의가 이룩된 오늘에 와서까지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얼마전에도 나토군총사령관은 이란핵계획에 관한 협의는 유럽에 미치는 미싸일위협을 제거하지 못하며 유럽미싸일방위체계분야의 계획들을 취소하게 하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백악관과 미국무성의 대표들도 류사한 견해를 밝혔다.

군사분석가들은 오늘날 미국이 유럽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할 아무러한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진짜목적이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로씨야를 겨냥한것이라고 까밝히고있다.

수리아의 위기로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있는 틈을 미국은 놓치지 않고있다.

미국은 로씨야가 저들보다 강해지는것을 두려워하고있으며 일극세계지배론에 방해가 된다고 속타산하고있다.

랭전시기 《별세계전쟁》계획을 통한 군비경쟁에서 톡톡히 맛을 본 미국은 오늘에 와서 그 복사판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통한 군비경쟁으로 어떻게 하나 로씨야를 붕괴시키려 하고있다.

미국이 이란핵합의가 이룩된 지금에 와서 《동맹국보호》의 간판밑에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것은 저들의 미싸일무력을 더욱 현대화하여 침략적인 군사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는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다.

제 고뿔도 남 주기 싫어하는 극도의 리기심을 가지고있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호》한다고 하여 누가 곧이듣겠는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방어적인것》이라고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된 오늘날 현대화된 상용무기체계를 놓고 공격적인것인가 방어적인것인가를 가르는것은 이미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는것이다. 어느 한 나라의 한 물리학교수는 미싸일방위체계가 공격용으로 얼마든지 전환될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명백히 잠재적적수인 로씨야를 계속 억제하고 압박함으로써 이 나라가 서서히 약화되도록 하여 저들이 지역패권을 쥐자는데 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책동에 강경대응하고있다.

외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금 로씨야가 핵미싸일발사기능을 갖춘 무인고속잠수정을 개발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 무인고속잠수정이 1만km까지의 항해능력을 가지고있으며 1 000m의 깊이에서 적국의 해안에 접근하여 핵타격을 가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지상레이다체계에 의거하고있는 미국의 《싸드》에 커다란 위협으로 될뿐아니라 빠른 속도와 먼거리항해능력 등으로 미군잠수함들을 릉가한다는데 대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로씨야의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최근 로씨야의 고위인물들속에서 나오고있는 미국에 대한 강경론조는 이 구상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도 로씨야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군사력강화조치로 대응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이로 하여 로미대결이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ㄱ-51203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